

지역 소식통

부안군, 제2기 군민감사관
위촉... 투명한 군정 실현

부안군은 지난 10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2기 군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 군민감사관 위촉은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군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제2기 군민감사관은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주민 등 7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양한 감사 활동에 참여하며 군정의 감시와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군민감사관은 위촉 기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
뮤직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충문)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기간에 열리는 제8회 마스앤파파스 뮤직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스앤파파스 뮤직페스티벌은 부모가 된 후에도 가수의 꿈과 열정을 이어가는 음악 애호가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음악 경연 대회로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써 수상자들에게는 총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35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구성된 1인 이상의 팀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올해는 참가 자격 기준을 완화해 자녀가 있는 20세 이상(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구성된 팀도 참가 가능하다.

경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취업 포기 청년에 희망 전한다

정읍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선정... 사업비 5억8860만원 확보
3월부터 총 120명 모집... 단기 30명 · 중기 60명 · 장기 30명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5억 8860만원(국비 5억 1860만원, 시비 7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취업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시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식 명칭은 '작담모험(자지만 담당하게 모여 힘을 내자)'으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과 교육·작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45세 청년으로, 구직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포함된다.

총 120명을 모집하며,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이상) 30명, 중기(15주 이상) 60명, 장기(25주 이상) 30명 등으로 나뉜다. 참여자에게는 과정보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말차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과정과 함께 △정읍도심투어 △목공예 체험 등 외부 연계·자율 활동으로 구성됐다.

또한 올해는 '또래 지원단'을 운영해 기존 참가자와 신규 참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1기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청년지원센터(☎063-536-0333)로 문의하면 된다.

이화수 시장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체육회, 보조금 부적정 집행 '덜미'

2024년도 지방보조금 체육분야 특정감사에 적발

부안군체육회가 2024년도 지방보조금 체육분야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업무추진비를 증빙서류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출장여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마치 씹질듯처럼 사용했다는 것.

현행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7조에서는 '지자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로 구분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체육회는 운영지원 보조금 예산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편성한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대상인원도 누락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등을 증빙서류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에도 운임에 대한 증빙서류를 누락, 관외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 운임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일비의 50%만 지급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비를 미감액하는 등 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것.

특히 청소년 댄스대회 개최시 시상품 구입 및 교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 또한 드러났다. 댄스대회 입상자들에게 시상품 및 식사쿠폰 등 총 325만원 가량을 지출하면서 증빙자료 및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예산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됐으며 직원들에게 보조금으로 운영위원 수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감사에 적발됐다.

군 체육회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 이미지, 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현장 중심 행정 박차... 주요 사업 성과 창출 가속화

정읍시가 '현장 속으로 시정'을 운영하며 주요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강화한다.

이화수 시장은 지난 10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준공 예정이거나 시민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점검한 사업장은 △기적의 놀이터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등 총 4곳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기적의 놀이터'에서는 "잔디광장을 성토해 아이들이 놀이터 전 구역을 자

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에서 "안전한 진입로 개설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화수 시장은 "'2025년에는 꽃을 활짝 피우고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안보환경 속 통일 방향 논의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1일 오전 11시,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동환 협의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35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비전 확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통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자문위원들은 통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환 협의회장은 "국가적 차원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화에서부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읍시협의회가 통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평화통일을 향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건의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협의회도 정기회의를 통해 통일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발대식

고창군이 11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 2층 회의실에서 어르신 인권 향상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인권지킴이 10명과 8개 노인의료복지시설장,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참석하여 발대식과 업무협약, 사전교육을 진행하였다.

노인안전지킴이로 위촉된 10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월 1회 시설에 방문하여 어르신 인권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상담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고창군노인복지시

설인권지킴이는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함께 진행해 앞으로 인권지킴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고창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최우수 선정

고창군이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전년도(대상)에 이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매년 실시되는 시·군별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다.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정 확충과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에 대한 지방세 수 실적과 세정운영 2개 분야 14개 평

가 항목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고창군은 우수한 실적으로 최우수에 선정됨과 동시에 특별조정교부금 1100만원을 확보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성숙한 납세예식을 가진 군민 여러분과 세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직원들의 협조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과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